



## [미국미래2030] 미국 패권의 미래: 트럼프 이후 미국은 어디로? (3)

### 미국의 선거정치와 미국의 미래

민정훈, 국립외교원

#### 문제 제기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아웃사이드'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후보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백악관에 입성한 후 어느덧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돌아볼 때 미국우선 통상정책, 강경한 이민 정책 등 자신의 주요 정책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원동력은 그의 백악관 입성을 가능하게 해 준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지층의 지지에 기반하여 재선 및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우선주의 핵심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민정훈 2016).

2016년 대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 백악관 입성을 이루어내고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태는 미국 선거 정치의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트럼프 후보가 지지층 결집 전략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트럼프 후보의 선거전략은 예외적이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이 바뀔 것인가? 즉 미국의 선거 정치는 향후 어떠한 특성을 보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미국 정치 양극화(polarization)가 미국 선거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에 재등장한 양극화는 정당 일체감의 영향력 강화 등에 힘입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정당 양극화 심화에 의해 유권자 지지 규모가 대등해진 상황에서 정당들은 무당파나 상대당 지지 유권자의 표심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당 지지자의 표심을 다지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 대선과 2018년 중간선거 결과는 자당 지지자 결집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의 유효성과 유권자 투표 행태에 있어 정당 일체감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유권자 투표 선택에 대한 정당 양극화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지속 혹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 미국 정치 양극화

일반적으로 양극화는 어떤 이슈에 대하여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한 대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과정을 일컫는다(DiMaggio, Evans, and Bryson 1996). 미국정치의 양극화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대립과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Jamieson and Falk 2000), 의회의 양극화로 대표되는 미국 정치엘리트 양극화는 197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다(Grofman, Koetzle, and McGann 2002; Hetherington 2001). 민주·공화 양당 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회 내 온건중도파는 점점 적어지고 이념적으로 강경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입법 및 의회 활동

에서 보다 더 힘을 얻어가고 있으며(Poole and Rosenthal 1984), 정당 간 차별성은 심화되는 반면 정당 내 동질성은 강화되고 있다(Jones 2001; Layman and Carsey 2002; Poole and Rosenthal 2001). 이러한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정당지도부이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당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Bartels 2000; Hill and Rae 2000; Roberts and Smith 2003). 이렇듯 정당 간 차별성이 심화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선호도와 상응하는 정당을 수월하게 일치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은 강해지고 있으며 정당이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있어 차지하는 의미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Aldrich 1995; Bartels 2000; Cox and McCubbins 1993; Hetherington 2001). 즉 정치엘리트 양극화가 유권자에게 전파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Bartels 2000; Hetherington 2001).

유권자 투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있어서 정당 충성도 (party loyalty)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된다(Bartels 2000). 즉 정당 일체감이 강한 지지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무당파(independent) 유권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에서 유권자 수준의 양극화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아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정당 충성도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유권자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의 중요성이 부활하고 있다는 논의에 도달한다. 유권자 정당의 부활의 이유는 의회 양극화에서 찾을 수 있다(Hetherington 2001; Layman and Carsey 2002). 후보자 혹은 의원들이 정당 중심적인(issue ownership) 의제를 부각시키면 유권자는 그러한 이슈에 반응하는 반면 그러한 의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정당 중심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의회의 양극화 심화로 대별되는 정치 양극화가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유권자는 정당 중심적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특정 정당선호도와 다른 정당에 대한 비선호도가 증가되는 이른바 유권자 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유권자 정당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Hetherington 2001).<sup>1</sup>

미국 의회의 양극화가 미국정치에 있어 20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 미국 의회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했으며(Black 1998), 이러한 양극화는 20세기 초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뉴딜(New Deal)을 거치면서 완화되었고 그 후 1960년대까지 들어 정당 간 차별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물론 그 당시에도 민주·공화 양당이 서로 구분되는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이념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복되어 있었고, 이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있어서의 정당 영향력 축소와 무당파의 증가로 이어졌다(Cortty 1984). 정당들이 이념적으로 서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입장을 취할 경우 유권자들은 이념에 근거해 지지 정당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정치엘리트 양극화가 미국정치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양극화의 수준은 보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미국 정치 양극화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 남부에서의 정당 재편성(party realignment), 정당지도부의 영향력 강화, 상임위원회의 약화와 의원총회의 영향력 증대, 신진의원들의 강경한 이념 성향, 당파성이 강한 정치지도자의 등장 등이 설명력을 갖는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Bartels 2000; Fleisher and Bond 2004; Hill and Rae 2000; Jacobson 1996; Roberts and Smith 2003; Rohde 1991). 이와 더불어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가 의회 내 정당 양극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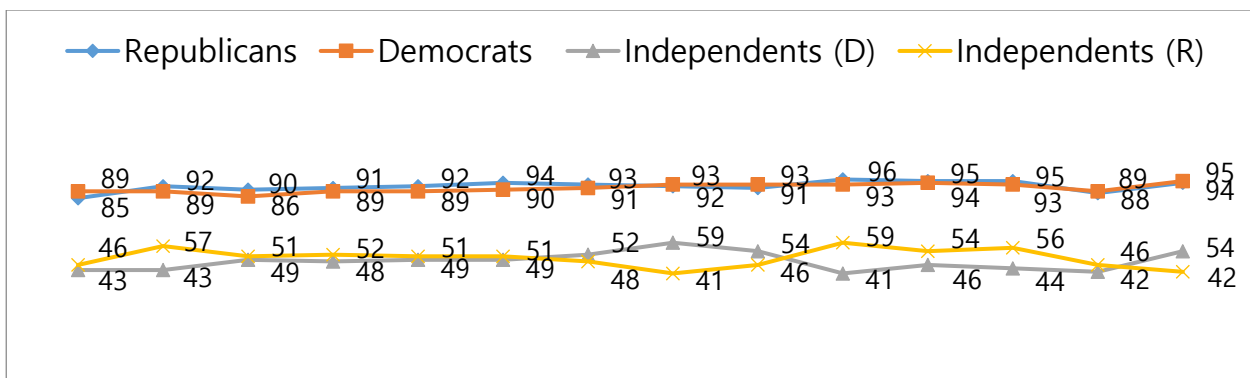
<sup>1</sup> 미국 정치 엘리트 또는 의회의 양극화와는 달리 미국 유권자들은 양극화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는 과거와 별 차이없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정당 간 경쟁 혹은 의회의 양극화로 인해 유권자를 포함한 미국 정치 시스템 전체가 양극화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Fiorina et al. 2005).

촉진시켰다는 주장(Stonecash et al. 2003) 및 유권자의 소득 양극화가 의회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관심을 받았다(McCarty et al. 2006).

미국 정치 양극화는 대체로 미국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Binder 1999; Jones 2001). 특히 미국 의회의 양극화는 대통령과 의회 간 교착상태(gridlock)를 심화시키고 정당 간 대립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극화는 의회의 입법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정책적 요구가 반영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의제 설정(agenda setting) 및 정책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Covington and Bargaen 2004). 일반적으로는 의제 설정 및 정책 결정에 있어 본회의 중간에 위치한 의원들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양극화 상황에서는 다수당 중심으로 의제 설정 및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당 중간에 위치한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회의 중요한 원칙인 합의가 무시된 채 그리고 소수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다수당의 독선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가상준 2008).

미국의 정당정치는 1960년대 이후 민주당 우위의 뉴딜 정당체계가 막을 내리고 민주·공화 양당 간 균형의 정당정치(party politics of parity)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더 이상 공화당은 민주당과 비교하여 유권자 지지 규모와 투표 선택에 있어 민주당에 크게 뒤지지 않으며, 1994년 의회선거 이후 의회의 다수당이 되고 2000년, 2004년,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균형의 정당정치는, 양당 간 이념적 차별성이 뚜렷해짐에 따라, 정당 양극화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선거 결과 및 정당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권자 지지 규모가 대등한 상황에서 정당들은 무당파나 상대당 지지 유권자의 표심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당 지지자의 표심을 다지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이 양당에 거의 같은 비율로 나누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당 지지자들이 실제로 투표일에 정당 일체감에 따른 선택을 하는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대선과 2018년 중간선거 결과는 자당 지지자 결집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과 유권자 투표 행태에 있어 정당 일체감의 중요성이 유효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유권자 투표 선택에 대한 정당 양극화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지속 혹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

<그림 1> 정당일체감에 따른 유권자 투표 선택 (1992-2018)



출처: New York Times 출구조사(1992-2014) & CNN 출구조사(2016,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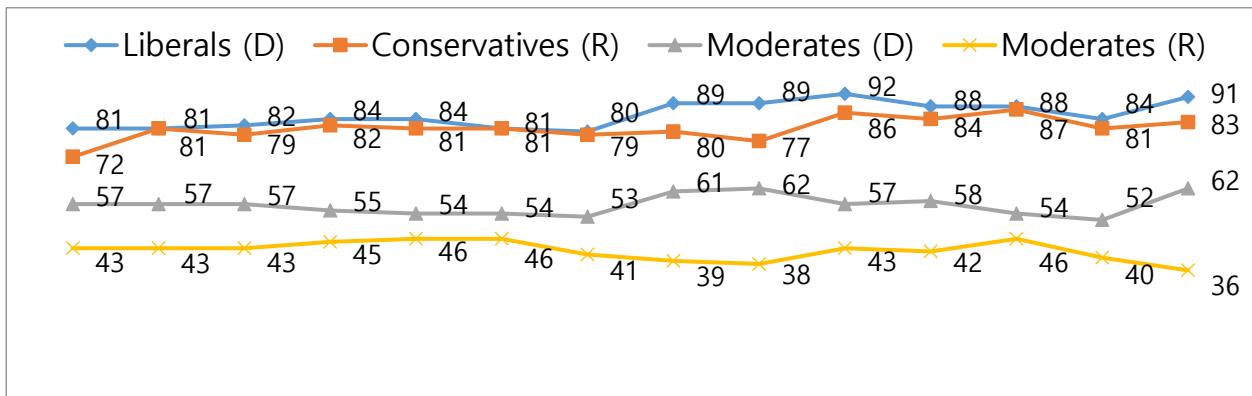
<Note> Republicans: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한 공화당 지지자

Democrats: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민주당 지지자

Independents(D):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무당파 유권자

Independents(R):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한 무당파 유권자

&lt;그림 2&gt; 이념 성향에 따른 유권자 투표 선택 (1992-2018)



출처: New York Times 출구조사(1992-2014) & CNN 출구조사(2016, 2018)

<Note> Liberals(D):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진보주의자  
 Conservatives(R):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한 보수주의자  
 Moderates(D):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온건주의자  
 Moderates(R):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한 온건주의자

## 정당 양극화, 정당 중심적인 의제, 지지층 결집 선거 전략

### 1.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2016 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와 ‘정치적 아웃사이드’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후보는 ‘최초의 여성 후보’와 ‘정치적 아웃사이드’라는 이력 이외에도 정책공약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을 보여줌으로써 선거결과에 관심을 더해 주었다.

많은 관심이 집중된 2016 년 미국 대선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sup>2</sup> 이러한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는데, 2016 년 미국 대선의 기본적인 판세(national conditions of the election)가 당시 여당 후보였던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개선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마지막 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여당 후보인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sup>2</sup> 트럼프 후보의 미국우선주의는 21세기 들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부(國富)를 낭비하기 보다는,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제무대에서 축소와 자제로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력의 내실화를 통해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Posen 2013). “Hire American and Buy American”으로 대별되는 트럼프 후보의 미국우선주의의 중심에는 통상(trade)과 이민(immigration)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미국우선 통상정책은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국제적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집중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미국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이민자와 과도한 일자리 경쟁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주장하였다(민정훈 2016).

이와 더불어 점차 나아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상황도 여당 후보인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였다. 경제상황이 좋은 경우 유권자들은 이를 집권여당의 공로로 여기기 때문에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집권여당에 책임을 물으려 하기 때문에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Kernell et al. 2015).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6 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였다.

<표 1> 2016 년 미국 대선 후보 주요 공약

클린턴 (민주당)	항 목	트럼프 (공화당)
국제주의 (Stronger Together)	대외정책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중산층 복원 FTA 지지 TPP 반대	경제·통상정책	부자 감세 FTA 재협상 TPP 반대
이민자 포용 불법 체류자 구제 난민 수용 지지	이민정책	이민 엄격 통제 불법 체류자 추방 난민 수용 반대
강력한 총기규제 LGBT 차별 반대 낙태 찬성 오바마케어 찬성	사회·복지정책	총기규제 반대 전통결혼 옹호 낙태 반대 오바마케어 반대

출처: 민정훈(2016)

그럼 어떻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CNN이 실시한 출구조사(exit polls) 결과는 공화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백인 유권자들의 결집이 선거 결과의 향방을 좌우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저학력·저소득의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의 결집이 트럼프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인 유권자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공화당 후보들이 역대 대선에서 히스패닉 등 비백인 유권자들을 향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도 잇따라 패배한 점을 고려해 주류인 백인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불러들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저학력·저소득의 보수적인 백인유권자를 핵심 지지층으로 설정하고 공략하였다. 미국의 전통적인 노동자계층이라 할 수 있는 블루칼라 백인유권자들은 세계화로 인해 미국 내 산업시설들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를 잃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값싼 일자리를 이민자들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상실감과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2016년 대선에서 기존 워싱턴 정치인들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아웃사이드어 트럼프 후보가 미국우선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잃어버린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을 대변해준다는 주장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민정훈 2016).<sup>3</sup>

<sup>3</sup> 2016년 대선에서 백인 노동자 계층의 트럼프 후보 지지는 제한된 물질 및 경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2016년 대선 결과는 양당 후보가 자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결집하는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 지지자의 89%가 클린턴 후보에게, 공화당 지지자의 88%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무당파 유권자의 경우 42%가 클린턴 후보를, 46%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이 두 후보에게 거의 대등하게 분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2016년 대선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백인 유권자들의 표를 결집하는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후보는 전국적으로 백인 표의 58%를 획득하여 37%의 표를 얻은 클린턴 후보를 압도하였다(표 3).<sup>4</sup> 백인 남성의 63%와 백인 여성의 53%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였으며(표 4), 특히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남성의 72%와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여성의 62%가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였다. 학력, 인종, 성별을 고려했을 때 백인 유권자층에서는 대학 졸업 이상의 여성(클린턴 지지 51%)을 제외하고, 대학 졸업 미만 남성(트럼프 지지 72%), 대학 졸업 미만 여성(트럼프 지지 62%), 대학 졸업 이상 남성(트럼프 지지 54%)이 모두 트럼프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표 5).

<표 2> 정당 일체감에 의한 유권자 투표 (전국)

	클린턴	트럼프
민주당 (36%)	89%	8%
공화당 (33%)	8%	88%
무당파 (31%)	42%	46%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표 3> 백인과 비(非)백인 유권자 투표 (전국)

인해 외부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편견이 생겨나고 결국 집단 간 갈등이 유발된다고 주장하는 실질적 집단갈등이론 (Realistic Conflict Theory)이 설명력을 갖는다. 내국인이 외부집단인 이민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내국인이 이민자를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위협”으로 인식하느냐, 즉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및 임금경쟁과 같은 경쟁 위기감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Sherif 1967). 또한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회고적 평가가 내국인이 이민자로부터 느끼는 위기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이민자로 인한 일자리 걱정을 덜하기 때문이다(민태은 2014). 이와 더불어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트럼프 후보 지지는 경제적 위기나 변화의 시기에 나타나는 'white counter-revolutionary politics'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거나 급진적으로 재형성될때 백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 왔던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라는 보수적인 방어벽이 작동하였고 이를 트럼프 후보가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Inwood 2018). 이러한 주장들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는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과 백인들의 인종적 지위에 대한 위협에 기반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중산층의 삶이 꺾여진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 임기 8년동안 추진되었던 불법 체류자의 합법적 지위 부여 시도, 동성 결혼 합법화, 오바마 케어 도입, 정부 규제 확대 등 진보적인 정치적 행보는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에게 비(非) 백인 혹은 소수 민족들(minorities)에 의해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주류 사회의 가치와 이익 수호 및 법과 질서 안정 등을 내세운 트럼프 후보의 미국우선주의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실현시키는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 미국우선 통상정책 등은 트럼프 후보를 자신들의 인종적 우위를 지켜 줄 지도자로 인식하게 해 주었고, 이에 따라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구심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민정훈 2018).

<sup>4</sup> [www.cnn.com](http://www.cnn.com)

	클린턴	트럼프
백인 (70%)	37%	58%
비백인 (30%)	74%	21%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표 4> 성별에 따른 백인 유권자 투표 (전국)

	클린턴	트럼프
백인 남성 (34%)	31%	63%
백인 여성 (37%)	43%	53%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표 5> 학력에 따른 백인 유권자 투표 (전국)

	클린턴	트럼프
대학 졸업한 백인 여성 (20%)	51%	45%
대학 졸업하지 않은 백인 여성 (17%)	34%	62%
대학 졸업한 백인 남성 (17%)	39%	54%
대학 졸업하지 않은 백인 남성 (17%)	23%	72%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은 플로리다(Florida, FL), 오하이오(Ohio, OH),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NC) 등에서 보다 큰 결집력을 보여주었다. CNN 출구조사 결과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백인 표를 각각 64%, 61%, 63%를 획득하였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수치는 트럼프 후보가 전국적으로 얻은 백인 표(58%)를 능가하는 것이다. 또한 세 경합주에서 백인 남성과 여성 모두 트럼프 후보에게 보다 많은 지지를 보냈다. 전국적으로 백인 남성의 63%와 백인 여성의 53%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반면, 세 경합주에서 백인 남성의 67%(FL), 67%(OH), 68%(NC)와 백인 여성의 60%(FL), 55%(OH), 60%(NC)가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였다(표 7). 이와 더불어,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경합주에서 백인 유권자의 과반수는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남성의 70%(FL), 70%(OH), 71%(PA)와 대학을 졸업한 백인 여성의 60%(FL), 55%(OH), 52%(PA)가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주요 경합주인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별과 학력에 관계없이 백인 유권자의 과반수가 트럼프를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백인 유권자들의 결집은 트럼프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lt;표 6&gt; 백인과 비(非)백인 유권자 투표 (경합주)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백인	32%	64%	34%	61%	33%	63%
비백인	71%	24%	81%	19%	80%	18%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lt;표 7&gt; 성별에 따른 백인 유권자 투표 (경합주)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백인 남성	28%	67%	27%	67%	27%	68%
백인 여성	36%	60%	41%	55%	38%	60%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lt;표 8&gt; 학력에 따른 백인 유권자 투표 (경합주)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1	37%	60%	41%	55%	46%	52%
2	33%	62%	41%	55%	29%	67%
3	32%	64%	29%	63%	33%	65%
4	25%	70%	26%	70%	21%	71%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 <Note>
- 1: 대학 졸업한 백인 여성
  - 2: 대학 졸업하지 않은 백인 여성
  - 3: 대학 졸업한 백인 남성
  - 4: 대학 졸업하지 않은 백인 남성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에서의 백인 유권자들의 결집은 트럼프 후보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러스트벨트 지역은 미국 중서부의 낙후된 공업지역을 일컫는다. 저학력·저소득의 전통적인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러스트벨트는 노동조합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1992년 대선 이후 단 한번도 공화당을 선택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텃밭(Blue Wall)이었다. 2016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하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PA), 미시간(Michigan, MI), 위스콘신(Wisconsin, WI)에서 박빙의 차로 승리하는 이변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백인 유권자들의 결집이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텃밭을 비집고 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백인 유권자의 과반수(56%,



57%, 53%)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였다. 또한 백인 남성의 64%(PA), 64%(MI), 59%(WI)와 백인 여성의 50%(PA), 51%(MI), 47%(WI)가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였다(표 10). 인종, 성별, 학력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백인 유권자들은, 대학 졸업장이 있는 여성(트럼프 지지 41%, 44%, 37%)을 제외하고, 대학 졸업 미만 남성(트럼프 지지 71%, 68%, 69%), 대학 졸업 미만 여성(트럼프 지지 58%, 57%, 56%), 대학 졸업 이상 남성(트럼프 지지 56%, 58%, 46%)이 거의 모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였다.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 민주당 텃밭(Blue Wall)을 상징하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남성의 71%와 68%가 트럼프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이들 계층의 성난 표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텃밭에서 승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16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 지역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및 폐지,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 제조업 재건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하는 트럼프 후보의 미국우선주의에 동조한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무역(international trade)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과반수(64%, 58%, 62%)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해준다(표 12).

<표 9> 백인과 비(非)백인 유권자 투표 (러스트벨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백인	40%	56%	36%	57%	42%	53%
비백인	81%	16%	80%	17%	76%	21%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표 10> 성별에 따른 백인 유권자 투표 (러스트벨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백인 남성	32%	64%	29%	64%	35%	59%
백인 여성	47%	50%	43%	51%	49%	47%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lt;표 11&gt; 학력에 따른 백인 유권자 투표 (러스트벨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1	55%	41%	50%	44%	60%	37%
2	38%	58%	38%	57%	40%	56%
3	39%	56%	36%	58%	46%	46%
4	26%	71%	24%	68%	26%	69%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 <Note> 1: 대학 졸업한 백인 여성  
 2: 대학 졸업하지 않은 백인 여성  
 3: 대학 졸업한 백인 남성  
 4: 대학 졸업하지 않은 백인 남성

&lt;표 12&gt; 무역의 효과에 따른 유권자 투표 (러스트벨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
미국 일자리 창조	65%	32%	65%	31%	59%	33%
미국 일자리를 빼앗음	32%	64%	36%	58%	33%	62%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백인 유권자의 결집에 성공한 반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비(非)백인 유권자와 젊은 유권자의 클린턴 후보 지지는 2012년과 비교하여 하락하였다. <표 13>은 비(非)백인 유권자들의 클린턴 후보 지지가 2012년에 비해 대략 5-6%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2016년 대선에서 흑인 유권자의 88%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트럼프 지지 8%)하였는데, 2012년의 경우 흑인 유권자의 93%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클린턴 후보 지지도 감소하였다. 클린턴 후보는 히스패닉 투표의 65%를 차지(트럼프 지지 29%)했는데, 2012년 오바마 후보(71%)와 비교하면 6%의 지지가 감소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클린턴 후보는 젊은 층의 지지를 2012년 오바마 대통령만큼 결집하는데 실패하였다. 2016년 대선에서 젊은 층(18-29세) 유권자의 55%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는데(표 14), 4년 전에는 이들 계층의 60%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비백인 유권자와 젊은 유권자의 클린턴 후보 지지 하락은, 클린턴 후보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서부의 펜실베이니아(0.7% 차), 미시간(0.2% 차), 위스콘신(0.7% 차)에서 박빙의 차로 패배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클린턴 후보가 전국 득표 수에서 앞서고도 과반의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하여 백악관 입성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lt;표 13&gt; 비(非)백인 유권자 투표 (전국)

	클린턴	트럼프
흑인 (12%)	88%	8%
히스패닉 (11%)	65%	29%
아시안 (4%)	65%	29%
기타 (3%)	56%	37%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lt;표 14&gt; 연령에 따른 유권자 투표 (전국)

	클린턴	트럼프
18-29 (19%)	55%	37%
30-44 (50%)	50%	42%
45-64 (40%)	44%	53%
65 세 이상 (15%)	45%	53%

출처: 2016 미국 대선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2016 년 미국 대선 투표 결정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정당 일체감, 이념, 인종 등 정당 양극화와 관련있는 요인들이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ANES Time Series Study' 자료<sup>5</sup>가 이용되었다.<sup>6</sup>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트럼프 후보 투표(Vote for Trump)이며,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로짓 회귀 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sup>5</sup> [www.electionstudies.org](http://www.electionstudies.org)

<sup>6</sup> 미국 대선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유권자가 현 정부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Fiorina 1981; Key 1966; Kinder et al. 1989; Lewis-Beck 1988)와 유권자의 정당일체감(Campbell et al. 1960; Finkel 1993; Lazarsfeld et al. 1944)이 미국 대선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 대선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 상황 등의 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Kramer 1971; Markus 1988),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들도 투표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경제 상황 등과 같은 몇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Abramowitz 1988; Campbell 1992; Erikson and Wlezien 1999; Holbrook 1991; Lewis-Beck and Rice 1992).

&lt;표 15&gt; 2016 년 미국 대선 투표 결정 요인들

	트럼프 후보 투표 (Vote for Trump)
대통령 지지율 (Presidential Approval)	-1.161***
정당 일체감 (Party ID)	.091***
국가 경제 상황 (National Economy)	-.004**
이념 (Ideology)	-.011***
트럼프 후보 친밀도 (Feeling Thermometer for Trump)	.009***
클린턴 후보 친밀도 (Feeling Thermometer for Clinton)	-.029***
인종 (White)	1.034***
연령 (Age)	.005*
종교 (Attending Church)	-.009***
소득 (Income)	.009***
교육 (Education)	.002
성별 (Gender)	-.001
상수 (Constant)	-.574**
N	4271
Model Chi-square	1911.80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1 level.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5 level.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level.

<표 15>는 대통령 지지율, 정당 일체감, 국가 경제 상황, 이념, 후보 친밀도, 인종 등 정당 충성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들이 2016년 대선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일수록 야당 후보인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였다. 국가 경제 상황이 1년 전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유권자일수록 야당 후보인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였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유권자일수록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유권자의 후보 친밀도(Feeling Thermometer)도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일수록 또한 클린턴 후보를 차갑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일수록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2016년 미국 대선 투표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종(race)의 영향력이다. 유권자가 백인일수록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였는데, 해당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중 인종 변수의 상관계수(coefficient)의 크기(1.034)가 대통령 지지율 변수(-1.161)와 더불어 가장 크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상관계수의 크기만을 가지고 변수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2016년 대선에서 인종 변수가 지지 후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트럼프 후보의 백인 동원 전략, 즉 트럼프 후보가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인 유권자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 2. 2018년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

2018년 중간선거 결과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원을,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가 형성되었다. 연방 상·하원에서 엇갈린 선거 결과는 2018년 중간선거의 판세와 '친(親)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 구도 형성에 따른 지지층의 결집 및 상쇄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중간선거의 경우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에게,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선거 판세가 형성되었다. 한편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과 국정 운영 스타일에 불만을 가진 진보 성향 유권자들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각각 결집하였고, 이에 따라 양당 지지율에 상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민정훈 2018). CNN이 투표일에 실시한 출구 조사 결과는 2018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sup>7</sup>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 지지층의 95%가 민주당 후보에게, 공화당 지지층의 94%가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렇듯 양당 지지층이 대등하게 결집함에 따라 양당 지지율에 상쇄 효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거 결과, 즉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민정훈 2018).

<표 16> 정당 일체감에 의한 유권자 투표

	민주당 후보 지지	공화당 후보 지지
민주당 (Democrats, 37%)	95%	4%
공화당 (Republicans, 33%)	6%	94%
무당파 (Independents, 30%)	54%	42%

출처: 2018 미국 중간선거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2018년 중간선거 결과는 민주·공화 양당이 의제 선점(issue ownership)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정당 중심적인 의제의 부각은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역대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은 주로 경제, 사회 문제 등 국내 정책이 차지해 왔으며, 2018년 중간선거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적과 이민 정책, 건강 보험, 총기 규제 문제 등 국내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공화당은 “이제 더 부유하게(Better Off Now)”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가능성 언급과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 확인 등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국민을 위하여(For the Peopl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건강보험 혜택 및 사회보장 확대, 부자 감세 철회,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이슈들을 내세움으로써 공화당의 이점을 상쇄하려고 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을 부각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이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반(反) 트럼프 정서를 적극적으로 자극하여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였다(민정훈 2018).

<표 17>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적, 건강 보험, 이민, 총기 규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 보험과 총기 규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한 유권자의 대다수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반면 이민과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

<sup>7</sup> [www.cnn.com](http://www.cnn.com).



라고 대답한 유권자의 대다수는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부각시킨 정책 의제들이 자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17> 주요 선거 이슈와 유권자 투표**

	민주당 후보 지지	공화당 후보 지지
건강 보험(Health care, 41%)	75%	23%
이민(Immigration, 23%)	23%	75%
경제(Economy, 22%)	34%	63%
총기 규제(Gun policy, 10%)	70%	29%

출처: 2018 미국 중간선거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2018년 중간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간주되었다. 출구 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부는 유권자가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해당 이슈를 둘러싸고 미국의 여론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88%가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 하고 있다고 대답한 유권자의 90%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표 19>는 2018년 연방 하원 투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의 95%가 공화당 후보를 선택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한 유권자의 94%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부가 대다수(64%)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8년 중간선거의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부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52%가 공화당 후보를, 44%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민주·공화 양당의 평가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라는 이슈를 통해 정당들이 자당 지지자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선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18>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와 유권자 투표**

	민주당 후보 지지	공화당 후보 지지
찬성(Approve, 45%)	11%	88%
반대(Disapprove, 55%)	90%	8%

출처: 2018 미국 중간선거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lt;표 19&gt;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부와 하원 투표

	민주당 후보 지지	공화당 후보 지지
트럼프 지지(26%)	4%	95%
트럼프 반대(38%)	94%	4%
트럼프와 무관(33%)	44%	52%

출처: 2018 미국 중간선거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2018년 중간선거에서 인종, 이념 등의 요인들도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출구 조사 결과는 그러한 예상을 뒷받침해 주었다.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백인 유권자의 54%가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반면, 비(非)백인 유권자의 76%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였다. <표 21>은 인종, 성별, 학력을 고려했을 때 백인 유권자층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여성(민주당 후보 선택 59%)을 제외하고, 대학 졸업 미만 여성(공화당 후보 선택 56%), 대학 졸업 남성(공화당 후보 선택 51%), 대학 졸업 미만 남성(공화당 후보 선택 66%)이 모두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저학력의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견고함을 보여준다. <표 22>는 진보적인 유권자의 경우 민주당 후보를, 보수적인 유권자의 경우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후보의 경우 진보적인 유권자의 91%로부터 선택을 받은 반면 공화당 후보의 경우 보수적인 유권자의 83%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lt;표 20&gt; 인종(Race)에 따른 유권자 투표

	민주당 후보 지지	공화당 후보 지지
백인(White, 72%)	44%	54%
비(非)백인(Non-white, 28%)	76%	22%

출처: 2018 미국 중간선거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lt;표 21&gt; 학력에 따른 백인 유권자 투표

	민주당 후보 지지	공화당 후보 지지
대학 졸업한 백인 여성 (White college women, 16%)	59%	39%
대학 졸업하지 않은 백인 여성 (White non-college women, 21%)	42%	56%
대학 졸업한 백인 남성 (White college men, 15%)	47%	51%
대학 졸업하지 않은 백인 남성 (White non-college men, 20%)	32%	66%

출처: 2018 미국 중간선거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lt;표 22&gt; 이념 성향에 따른 유권자 선택

	민주당 후보 지지	공화당 후보 지지
진보 (Liberal, 27%)	91%	8%
온건 (Moderate, 37%)	62%	36%
보수 (Conservative, 36%)	16%	83%

출처: 2018 미국 중간선거 CNN 출구조사([www.cnn.com](http://www.cnn.com))

## 전망: 미국 정치 양극화와 선거정치의 미래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에 재등장한 양극화는 정당 일체감의 영향력 강화 등에 힘입어 심화되어 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6년 대선과 2018년 중간선거 결과는 자당 지지자 결집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의 유효성과 유권자 투표 행태에 있어 정당 일체감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유권자 투표 선택에 대한 정당 양극화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지속 혹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 미국 선거에서 확인되는 정당 일체감의 영향력 강화 및 정당 중심적인 의제의 부각 등은 유권자가 지지 정당 후보의 정치적 입장 및 주장 등을 목인, 동의, 지지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6 대선 기간 정책적 차이점과 인종 차별, 여성 차별 이슈 등으로 인해 공화당 지도부와 갈등을 표출하고 그에 따라 공화당으로부터 제한적인 선거 지원을 받았던 트럼프 후보에게 공화당 지지자의 88%가 투표하였다는 것은 정당 양극화 상황에서 유권자의 후보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그리고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 공약을 얼마나 밀어부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또한 2018년 중간선거에서 무당파의 표심이 민주당에게 다소 기울어졌음에도(민주당: 54%, 공화당: 42%) 불구하고 공화당 지지자의 94%가 자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적실성을 확인해 준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대선 결과는 트럼프 후보의 백인 동원 전략이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트럼프 후보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결집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추진함에 있어 이들 지지층의 선호와 정치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그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행위자가 바로 그러한 유권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정치적 행보를 취함에 있어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요 정책 의제들을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핵심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치적 명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의제 추진 행보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며,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우 양극화된 선거 환경에서 지지층 결집을 통한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2016년 대선에서 나타난 트럼프 후보의 미국우선주의 주장과 그가 보여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 전략이 미국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례라는 주장을 거부한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처해있는 대내외 정치적 환경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미국 선거 정치의 특성을 자신의 특징에 맞춰 이용한 것이지, 그러한 환경을 선거 승리를 위해 최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후보의 미국우선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2016년 대선 출구 조사에서 미국의 국제문제 불개입(noninvolvement)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응답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 준다. "미국이 국내문제에 집중하고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보다 번영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8%의 유권자가 동의하였다는 점, 그리고 불개입 정책에 동의하는 유권자일수록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전히 싸늘한 체감 경기와 증가하는 무역 및 재정적자가 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문제에의 집중과 국익중심의 대외정책을 지지하도록 이끌어 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여론은 트럼프 후보가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우선 외교정책을 주장하게 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민정훈 2016). 이러한 상황은 국력의 내실화를 추구하기를 바라는 미국 내 여론이 지속되는 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 대외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며, 또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자국 중심 대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다룬 미국 정치 양극화와 선거 정치에 관한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현상(status quo)을 변화시킬 강력한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미국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지지층 결집 전략 추구는 지속될 것임을 보여 준다. 민주·공화 양당 간 유권자 지지 규모가 대등한 상황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정당 중심적인 이슈들의 부각을 통해 자당 지지자의 표심을 다지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특성과 소속 정당 등에 따라 정책 의제들의 선택 및 추진 방향, 캠페인 메시지의 강경함 등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

## 참고문헌

- 가상준. 2008. “미국 50 개 주들의 정치 선호도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미국정치의 분열과 통합: 엘리트, 유권자, 이슈 양극화와 정치과정》. 미국정치연구회 엮음, 서울: 오름.
- 민정훈. 2016.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함의.” 국립외교원, 2016년 12월 7일.
- 민정훈. 2018.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전망.” 국립외교원, 2018년 11월 20일.
- 민태은. 2014. “미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위기감: 인종과 경제조건.” <한국정치학회보> 제48호 5: 25-42.
- Abramowitz, Alan I. 1988. “An Improved Model for Predicting Presidential Election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1, 843-847.
- Abramowitz, Alan I. and Kyle I. Saunders. 1998. “Ideological Realignment in the U.S. Electorate.” *Journal of Politics* 60, 3: 634-652.
- Aldrich, John H. 1995. *Why Parties? 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Americ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rtels, Larry M. 2000. “Partisanship and Voting Behavior, 1952-1996.”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1: 35-50.
- Binder, Sarah A. 1999. “The Dynamics of Legislative Gridlock, 1947-9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 3: 519-533.
- Black, Earl. 1998. “The Newest Southern Politics” *Journal of Politics* 60, 3: 591-612.
- Campbell, James E. 1992. “Forecasting the Presidential Vote in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386-407.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Cortt, Williams. 1984. *American Political Parties in Decline*. Boston: Little Brown.
- Covington, Cary R. and Andrew A. Bagen. 2004. "Comparing Floor-Dominated and Party-Dominated Explanations of Policy Chang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urnal of Politics* 66, 4: 1069-1088.
- Cox, Gray W. and Matthew D. McCubbins. 1993. *Legislative Leviathan: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iMaggio, Paul, John Evans, and Bethany Bryson. 1996. "Have Americans' social attitudes become more polariz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 3: 690-755.
- Erikson, Robert S. and Christopher Wlezien. 1999. "Of Time and Presidential Election Forecast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9, 37-39.
- Finkel, Steven E. 1993. "Reexamining the "Minimal Effects" Model in Recent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5, 1-21.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2005.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New York: Longman.
- Fleisher, Richard and John R. Bond. 2004. "The Shrinking Middle in the US Congres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429-451.
- Grofman, Bernard, W. Koetzle, and A. J. McGann. 2002. "Why Party Leaders are More Extreme than Their Members: Modeling Sequential Elimination Election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ublic Opinion* 113, 337-356.
- Hetherington, Marc J. 2001. "Resurgent Mass Partisanship: The Role of Elite Polar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3: 619-631.
- Hill, Kevin A. and Nicol C. Rae. 2000. "What Happened to the Democrats in the South?: US House Elections, 1992-1996." *Party Politics* 6, 1: 5-22.
- Holbrook, Thomas M. 1991. "Presidential Elections in Space and Tim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91-109.
- Inwood, Joshua. 2018. "White Supremacy, white counter-revolutionary politics, and the rise of Donald Trump." *Environment and Planning C: Politics and Space* 0, 0: 1-18.
- Jacobson, Gary C. 1996. "The 1994 House Elections in Perspectiv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1, 2: 203-223.
- Jamieson, Kathleen and Erica Falk. 2000. "Continuity and Change in Civility in the House." In *Polarized Politic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eds. Jon R. Bond and Richard Fleisher. Washington D.C.: CQ Press.
- Jones, David R. 2001. "Party Polarization and Legislative Gridlock."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 1: 125-141.
- Kernell, Samuel, Gary C. Jacobson, Thand Kousser, and Lynn Vavreck. 2015. *The Logic of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CQ Press.
- Key, V O Jr.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mbridge: Belknap.
- Kinder, Donald R., Gordon S. Adams, and Paul W. Gronke. 1989. "Economics and Politics in the 1984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3, 491-515.
- Kramer, Gerald H. 1971.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1896-196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131-143.
- Layman, Geoffrey C. and Thomas M. Carsey. 2002. "Party Polarization and Conflict Extens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 4: 786-802.
- Lazarsfeld, Paul F.,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New York: Duell, Sloane, and Pearce.
- Lewis-Beck Michael S. 1988. "Economics and the American Voter: Past, present, future." *Political Behavior* 10:5-21.
- Lewis-Beck Michael S. and Tom W. Rice T. 1992. *Forecasting Elections*. Washington D.C.: CQ Press.
- Markus, Gregory B. 1988. "The Impact of Personal and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on Presidential Voting: A Pooled Cross-Sectio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137-154.
- McCarthy, Nolan M., Keith T. Poole, and Howard Rosenthal. 2006. *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Cambridge: The MIT Press.

- Poole, Keith T. and Howard Rosenthal. 1984.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olitics." *Journal of Politics* 46, 4: 1061-1079.
- Poole, Keith T. and Howard Rosenthal. 2001. "D-NOMINATE after 10 years: A comparative update to congress: A political-economic history of roll-call voting."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6, 1: 5-29.
- Posen, Barry R. 2013. "Pull Back: The Case for a Less Activis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92, 116-128.
- Roberts, Jason M. and Steven S. Smith. 2003. "Procedural Contexts, Party Strategy, and Conditional Party Voting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71-2000."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 2: 305-317.
- Rohde, David W. 1991. *Parties and Leaders in the Postreform Hous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rif, Muzafer. 1966.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ir Soci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Stonecash, Jeffrey M., Mark D. Brewer, and Mark D. Mariani. 2003. *Diverging Parties: Social Change, Realignment, and Party Polarization*. Boulder: Westview Press.

■ **저자:** **민정훈**\_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노스이스턴 주립대학교(Northeastern State University) 정치학과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정치,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트럼프 등장과 동북아 안보, Vote Determinants in Korean Gubernatorial Elections,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한미 안보 관계의 쟁점, Do Campaigns Matter Outside the United States?, Equilibrium and Enlightenment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이영현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7) ylee@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19년 12월 5일

[미국미래2030] 미국 패권의 미래: 트럼프 이후 미국은 어디로? (3)

“미국의 선거정치와 미국의 미래” 979-11-90315-29-6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